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광복70주년 특집다큐 <그리운이름 고향 -디아스포라 아산의 땅 아르헨티나>	25 덕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라>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네트워킹 특선 유적도크소 가요1번지 55 안녕 우리말	00 1대100(재)	00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재)	10 덕터 365(재)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12 40 채널A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0 사람과 사람들(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45 희망TV SBS 나눔 그 착한 선물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생생정보쇼 스페셜	20 문화사색(재)	
2	00 우리말 겨루기(재) 55 안녕 우리말(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푸리키 식사교실	
3 00 이언경의 직언직실	00 당신의 100세는 안녕하십니까(재) 55 튜트생황제초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무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쿨 55 꼬마돌도도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TV우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30 토닥토닥 꼬꼬
5 5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1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덕터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05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때마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갈데까지 가보자(재)	25 우리집 끝단지	30 2TV 저녁 생생정보2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충격 실화극 썬인(재)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 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제능	10 PD수첩	15 불타는 청춘
12 20 아내가 뿔났다(재)	35 독립영화관 <디베라>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토크쇼 부모 <이슈 N 램>
05:30 건강환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10 다큐 오늘
07:00 레이디 비그	11:20 세계테마기행(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정오 뉴스
07:45 로보카 폴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08:00 당동댕 유치원1	13:05 지식채널e
08:10 Why-최고다 호기심딱지	13:10 갤럭시 프로젝트
08:20 당동댕 유치원2	13:40 출가운 수학 EBS MATH
08:30 두다다공(재)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08:40 당동댕 유치원3	14:00 허풍선이 과학쇼
08:45 코코코 다코	14:30 두바두바 눈보리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	15:00 꼬마 철학자 후고

15:15 꼬마기사 마이크	20:40 다큐 오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페루 속삭여 땅을 가다>
15:40 모피와 친구들	21:30 한국기행 <목포는 향구다>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재)	21:50 EBS 다큐프라임 <교육대기행 시합>
16:45 당동댕 유치원1~3(재)	22:45 다큐영화 <김 위영의 인생>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3:35 시청자와 함께하는 최고의 요리비결 스페셜
17:45 로보카 폴리	24:05 지식채널e(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3	24:10 EBS 인문학 특강
18:45 신동방통 공룡 슈퍼	25:00 세계 명작극장 <지구에서 날까지>
18:55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레이디 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	12:15 뉴 탐스런 <윤리와 사상>(재)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3:05 수능특강light <영어-독해>
01:40 " <문학-알파개념>	14:00 수능열기 <수학(가형)>(재)
02:30 " <미적분1>	14:50 수능 길잡이 <국어-독사>(재)
03:20 " <수학 1>	15:40 " <영어 독해-구문>(재)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1>	16:30 " <영어-듣기>(재)
05:00 뉴탐스런 <물리>	17:20 2017 수능개념
06:00 " <생명과학>	18:10 " <체인지 수학II>
06:50 " <동아시아사>	18:50 " <화물과 통계>
07:40 " <윤리와 사상>	19:10 뉴탐스런 <동아시아사>(재)
08:30 수능열기 <수학(가형)>	20:00 EBS스타강사 특강
09:20 수능 길잡이 <국어-독사>	20:50 2017 수능개념
10:10 " <영어 독해-구문>	21:40 " <물리 I 에 물들다>
11:00 " <영어-듣기>	21:40 " <해석 공식>
12:10 5분과문 - 화학 1	22:30 최태섭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EBS플러스2

07:0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강좌	15:50 " <수학 4-2>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6:20 " <영어 5-2>
08:30 검정고시 교육강좌	16:50 " <수학 6-2>
09:00 출가운 수학 EBS MATH	17:20 초등과학 개념잡기
09:10 TV중학 <국어(1)(2)>	17:50 다큐 오늘
09:50 " <수학(1상)>	18:00 TV중학 <국어(5)(6)>
10:30 " <역사 2>	18:40 " <수학(3상)>
11:10 " <국어(3)(4)>	19:20 필독중학 세계사
11:50 " <수학 2(상)>	20:00 EBS 기획특강
12:30 실천취업가이드	20:50 우리 아이가 학교 가요
13:00 데일리 서술형 수학 <수학(1하)>	21:40 중학생활 그것이 궁금하다
13:10 등업신공 <과학(2하)>	22:00 등업신공 <과학(3하)>
13:50 " <과학(1하)>	22:40 " <수학(3하)>
14:30 " <수학(2하)>	23:20 필독중학 <사회(1-2)>
15:20 만점왕 <수학 3-2>	24:00 왕기초 중학 <수학(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5일(음 11월 5일 乙丑)

子	48년생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60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괜한 시비 수에 휘말린다. 72년생 한가지 일에 집중을 해야 효과를 거둔다. 84년생 선후를 정하지 않으면 실속없이 분주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5, 57
丑	49년생 삼사일인 한다면 실수는 면하리라. 61년생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으니 대범하게 넘겨도 된다. 73년생 예견되는 대국은 사전에 철저히 차단되어야만 한다. 85년생 조처 하지마자 절실히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43, 66
寅	38년생 과정에 충실하면 결실을 맺는다. 50년생 보원해야만 하느니라. 62년생 주관을 갖고 중심에서 있어야만 무탈하리라. 74년생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느니라. 86년생 몇 갑절의 노력을 경주해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7, 74
卯	39년생 얼마나 치밀 하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다. 51년생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3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극복되리라. 75년생 치밀하지 않으면 헛수고만 반복될 뿐이다. 87년생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라. 행운의 숫자 : 19, 41
辰	40년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넓어지는 형국이다. 52년생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4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게 켜지게 될 것이다. 76년생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1, 04
巳	41년생 호기가 돌아왔으니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된다. 53년생 중요한 사항이 언급될 것이니 만전을 기해야 하느니라. 65년생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77년생 답할 때일수록 가다를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0, 31

午	42년생 기반이 견고하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54년생 좋은 인연과의 호뭇한 일이 있을 것이다. 66년생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78년생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2, 47
未	43년생 유동적인 변수가 매우 크다. 55년생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67년생 이전과 똑같은 상황만 되풀이 뿐이니 일찌감치 접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 79년생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56
申	44년생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파멸을 부를 뿐이다. 56년생 현태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68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 좋다. 80년생 뜻을 굽히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89, 83
酉	45년생 구분을 해주어야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57년생 실익이 없다면 급격히 빨리 선회하는 것이 좋다. 69년생 목적하였던 바의 본격적 행국이 벌어질 것이니라. 81년생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5, 77
戌	46년생 비결을 알고 나면 의외로 싱거울 것이다. 58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70년생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숨은 고통이 보인다. 82년생 견인불발의 자세로 초지일관하면 무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92
亥	47년생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리라. 59년생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어야만 형국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71년생 여건의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83년생 희망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으니 귀를 기울여라. 행운의 숫자 : 64, 2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막장 아닌 잔잔한 울림에 힐링되죠”

MBC 주말극 '엄마' 주연 차화연



“저도 ‘막장 드라마’ 해봤지만 촬영하는 내내 몸도 아프고 기분도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번에 ‘엄마’를 찍으면서는 정말 행복하네요. 시청률이 조금 안 나오면 어때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하는데.”

MBC TV 주말극 ‘엄마’에서 일찍 남편을 잃고 자식을 키운 운정에 역을 맡은 차화연(사진)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일 방송을 시작해 총 50회 중 28회를 방송한 ‘엄마’는 15~16%를 오가는 시청률로 주말 저녁 중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차화연은 “중년 로맨스 연기를 곧잘 했지만 이렇게 순수한 멜로를 그리는 건 처음”이라며 “‘막장’을 벗어나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남편 없이 2남1녀를 잘 키워낸건만 정애의 자녀들은 ‘효도는 선포’를 외치며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그녀에게 호탕한 성격의 엄회장(박영규 분)이 다가온다.

자녀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탐탁지 않아 하지만 두 사람은 뒤늦게 찾았든 사랑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중이다.

차화연은 “엄 회장 같은 사람이 현실에 있을까 싶다”며 “아무래도 드라마 내용상 주변 친구들한테 반응이 오는데 ‘어디엄 회장 같은 사람 없을까? 사랑하고 싶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해줬다”고 웃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박영규는 “30대 중반에 멜로 드라마를 찍으면서 ‘환기가 넘어서도 멜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 꿈이 이뤄졌다”며 “할리우드 배우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배우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 10년 뒤에 또 멜로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말, 금사월’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동네에 막장 집안이 있고 그냥 조용히 잘 사는 집안이 있으면 당장은치고받고 싸우는 집에 눈이 가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슴에 남는 건 따뜻한게 잘 사는 집안인 것”이라며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있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사랑해”라는 대사에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한 박영규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마음, 잃어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 드라마가 건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정훈 PD는 “‘금사월’이 양념이 센 외식이라면 우리 드라마는 담백한 집밥”이라며 “조금 다른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주시고 어떤 가치를든 조금 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불새’ 등 트렌디한 드라마를 만들었고 ‘금사월’과 마찬가지로 자극적이라는 평을 들었던 ‘왔다! 장보리’의 CP였던 오 PD는 “‘장보리’가 끝나고 안식년을 가진 뒤 돌아와보니 정말 다들

‘막장 드라마’이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분위기가 돼있었다”며 “하지만 ‘엄마’처럼 잔잔하게 울림이 있는 드라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말, 금사월’과 직접 비교하면 시청률은 아쉽죠. 하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둔 것 아닌가 해요.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엄마’ 같이 중화제이자 해독제 역할을 하는 드라마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중년의 잔잔한 사랑을 그린 MBC TV 주말극 ‘엄마’는 중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15% 내외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막장 요소를 넣고 싶은 유혹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랑을 그린 드라마도 있어야 한다는 독심과 고집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PD는 함께 호흡을 맞추는 김정수 작가에게 공을 돌리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쓴 하명희 작가가 ‘비전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간식차를 보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갯미래’ 강림

윤미래 싱글곡 ‘멜론’ 등 음원차트 1위

래퍼 겸 보컬 윤미래(34·사진)가 발라드 신곡으로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윤미래가 14일 0시 공개한 싱글 ‘사랑이 맞을거야’는 오전 8시 기준으로 멜론, 엠넷닷컴, 유투뮤직, 지니, 소리바다, 벅스, 네이버 뮤직, 몽키3뮤직 등 실시간차트 1위에 올랐다. 이 곡은 아이돌 가수들의 신곡 순위가 급상승하는 새벽부터 막강한 팬덤을 보유한 엑소의 신곡 ‘싱 포 유’(Sing For You)를 제치고 정상에 진입하는 ‘음원 파워’를 보여줬다.

특히 올해 연말 차트는 엑소 뿐 아니라 싸이와 지코의 신곡, 드라마 ‘응답하라 1988’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곡 등이 꾸준한 1위 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윤미

래의 경쟁력이 재확인된 셈이다.

작곡가 황찬희가 만든 ‘사랑이 맞을거야’는 이별 후 떠나간 사랑에 아파하면서 또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애달픈 마음을 주제로 한다. 윤미래의 독보적인 감성이 담긴 음색이 깊은 슬픔을 전하는 곡이다.

윤미래는 국내 대표 여성 래퍼 이면서도 훌륭한 가창력을 지녀 음원팬들 사이에 ‘갯미래’로 불린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 ‘하루하루’, ‘메모리즈’ 등 알앤비(R&B) 기반의 랩 곡을 비롯해 ‘타치 러브’, ‘너를 사랑해’, ‘너의 얘길 들어줄게’ 등 발표하는 곡마다 큰 사랑을 받아 랩과 보컬이 모두 가능한 가수로 인정받고 있다.



안재욱 4년만에 드라마 복귀

KBS ‘아이가 다섯’ 출연



배우 안재욱(사진)이 KBS 2TV 주말드라마 ‘아이가 다섯’으로 4년 만에 TV 드라마에 복귀한다고 흥보사 플레이가 14일 밝혔다.

내년 2월 방송되는 ‘아이가 다섯’은 싱글맘과 싱글대디가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을 만나는 이야기로 가족 간 갈등과 화해, 사랑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명랑 코믹 가족극이다.

안재욱은 아내와 사별한 뒤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싱글대디 이상태를 연기한다.

2012년 ‘빛과 그림자’ 이후 4년 만의 드라마 출연이다.

안재욱은 “대본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며 “‘아이가 다섯’은 가족과 아이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감이 넘치는 작품이다. 드라마가 지닌 밝고 힘찬 에너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연기를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연애의 발견’,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 ‘처음이라서’를 쓴 정현정 작가의 첫 주말극이다. /연합뉴스